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한 벤처 캐피탈(VC)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 바이오산업 육성 벤처 캐피털과 협력

창조경제혁신센터·VC 7개 기업과 업무협약

중소기업 투자 확대·바이오 기업 성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벤처 캐피탈(VC)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IMM인베스트먼트, (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주)데일리파트너스, 크립톤, (주)젠엑시스, 스케일업파트너스, 스케어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생명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선도기술을 확보해 의생명산업의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창조경제혁신센터, VC 7개 기업은 이날 협약에 따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 관련 창업 촉진 및 육성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지원 및 바이오 기업 관련 투자유치 활동 및 확대 등을 추진기로 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운용 자산 7조

원의 국내 최대 투자사로, 코스피 시가총액 5위의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차세대 유니콘 후보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직방', 10·20대 의류 쇼핑몰 '무신사', 국내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는 설립 이래 가장 큰 2,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으며, 3월 기준 누적운용자산이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파트너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투자기관으로서 혁신적인 과학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지원하는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 회사다.

전북자치도는 유망 벤처 캐피털 기

업과의 우호협력을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공동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 전문인력을 늘려 바이오 기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벤처생태계가 구축된다"며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해 전북에 자리잡은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함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 산업 성장 논의

전북자치도, 한국산기평과 업무협약 따른 협력 모델 발굴 추진

전북자치도가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친환경·첨단모빌리티 신규 R&D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추진된 전북자치도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 전북테크노파크,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농·건설기계, 자동차, 조선, UAM 등)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첨단 모

빌리티 정책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R&D) 추진 방향과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공유했으며, 이후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중앙부처 대응 방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중앙부처 연구개발(R&D) 전담기관과 연계해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 특화산업 분야별 연구개발(R&D)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과제 발굴 협력 및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 확보한다

전북자치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대 운영

전북자치도가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고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과 신세계병원에 정신응급병상을 각 1개씩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병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24시간 치료 및 관찰이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도내 정신응급병상은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2개 병상 뿐이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타

인을 해칠 우려가 큰 정신응급환자 입원에 대응인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는 이번 병상 2개소를 추가로 확보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의 어려움을 덜고, 정신응급환자의 치료 지원을 받기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응급병상 추가 확보를 통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의 날 맞아 교통약자 의견 수렴 간담회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불편사항 해소 추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약자, 도·시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도내 교통약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참석 수요조사를 거쳐 10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 방식으로 추진됐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저상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장애인 콜택시 257대를 확보해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광역이동체계를 갖추고 있다.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저상버스 261대를 운행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강장 개선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19개소 승강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계층이나 장애 유무, 소득 수준을 떠나 도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날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민 누구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혁신도시 악취 저감 총력

5월 3일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

전북자치도가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혁신도시 주변 둔사, 퇴·액비 제조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원을 점검해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관계부서 분야별 담당자 10여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했다. 점검반은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

지면 일원 악취배출시설(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90여 개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악취 발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및 가축분뇨 처리 기준, 축산업 허가 준수사항,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방치,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출,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 살포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준을 위반한 시설(2022년 3개, 2023년 5개)에 대해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